

제1회 청소년 특별회의 참가자에게 보내는 서신

안녕하십니까?

지난 27일, 참 반갑고 즐거웠습니다.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 좀 했겠지요?

정성스럽게 써 준 편지 한 통 한 통 잘 읽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이 얼마나 다양하고 폭넓게 생각하는지 새삼 놀랐습니다. 우리나라 청소년이 왜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.

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공동체를 걱정하는 속 깊은 마음은 더욱 대견해 보였습니다.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나 소외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견을 보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.

정말 힘이 납니다. 편지 속에 담긴 소망이 이뤄지도록 대통령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에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상정된 의제들은 관심을 가지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.

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미래에 대해 기대가 큼니다. 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.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, 나아가 인류의 희망입니다. 선량

한 포부를 품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.

2005년에도 알찬 계획과 실천으로 더욱 뜻깊은 한 해 되기를 기원하며, 새해
복 많이 받으십시오.